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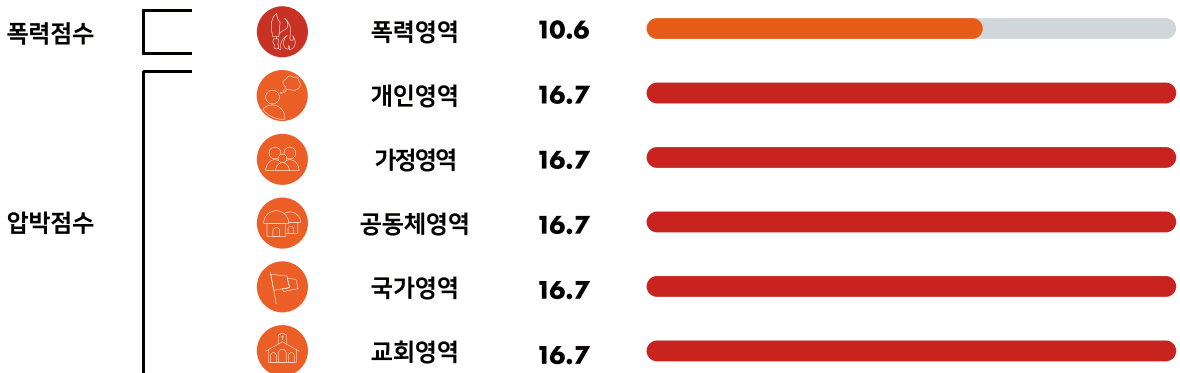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3 위

예멘(YEMEN)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예멘의 토착 교회는 대부분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신앙을 비밀리에 실천해야 한다. 이들은 당국(구금 및 심문 포함), 가족 및 급진 이슬람 단체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배교자는 사형 위협을 받고 있다. 예멘의 부족 정체성은 이슬람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떠난 것에 대해 부족으로부터 심각한 공동체 압력과 폭력을 받고 있다. 무슬림과 결혼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강제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전반적인 인도적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예멘 기독교인들은 긴급 구호가 현지 무슬림에게 선호적으로 제공되고, 독실한 무슬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스크를 통해 분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약하다.

예멘 (YEMEN)

국가 정보

지도자 : 의장, 대통령 리더십 평의회
라사드 무함마드 알알리미
인구 : 35,220,000 명
기독교인 수 : 소수(오픈도어 추정치)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전환 중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소수	-

오픈도어 추정치에 따름

2014년, 후티 반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은 하디 정권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군부와 연합하여 수도 사나를 장악했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디를 재집권시키고 국경을 보호하며 예멘의 분열을 막고 수니파가 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지역 라이벌인 이란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군력으로 후티 반군을 빠르게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37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15만 명 이상이 무력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의 결과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훨씬 더 많다. UNDP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거의 83%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 지역에서 흔히 그렇듯이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는 자신들이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은 특히 취약하다.

예멘은 권위주의적 이슬람 공화국이며 1994년 헌법

에 따라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주요 법규이다. Middle East Concern에 따르면 "신성 모독, 종교 명예 훼손, 비이슬람 개종은 금지되어 있다. 배교는 형사 범죄이며, 배교를 철회하지 않는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슬림과 배교자,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남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등 이슬람의 개인 신분법이 적용된다. 비이슬람 종교 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 절차는 없으며, 정부는 수년 동안 비이슬람 예배당 건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 WCD의 종교별 분류는 공개할 수 없다. 오픈 도어는 기독교인의 수를 '수천 명'으로 추정한다. 2015년 현재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다음과 같이 허용되었다. 아덴과 사나에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들 기독교인 대부분은 분노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로 나라를 떠나야 했고, 일부 교회는 탈당했다. 현재 예멘의 기독교인 대부분은 토착 개종자들이다. 그들은 가족, 씨족, 부족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살해당할 위험이 크다. 또한 예멘에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기독교 난민들도 예멘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예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알카에다의 세력이 강한 남부 지역과 같이 일부 지역이 특히 위협적이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수니파 하디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보다 시아파 후티가 통제하는 북부 지역(예멘 영토의 약 3분의 1을 차지)에서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은 치안이 엄격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엄격하게 탄압하며 투옥과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개인은 대면 및 휴대전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는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거의 모든 서방 외국인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쟁으로 인해 이 나라를 떠났다. 인종 차별과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해 남겨진 이주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협박과 급진 이슬람 운동의 폭력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교회는 이제 대부분 원주민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기독교인 카테고리는 WWL 분석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카테고리는 WWL 채점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예멘 교회의 최소 95%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 개종자로 구성되어 있다. 개종자들의 취약성은 여전히 예멘 전역에서 매우 높은 가족/공동체/부족의 태도, 급진적 이슬람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급진적 이슬람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국가 (또는 사실상 국가) 당국의 거부 어떤 형태의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카테고리는 WWL 채점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

예멘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샤리아를 모든 법의 근원으로 선언하고 있다. 개종은 금지되어 있으며 무슬림은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은 예멘 부족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후티 반군,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 (AQAP), IS와 같은 무장 조직은 청교도적인 형태의 이슬람을 구현하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이슬람 억압의 주요 원동력이며 기독교인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살해해 왔다.

부족의 억압

예멘 사회는 주로 부족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 정부의 권한은 통치 측면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 정체성은 종족 정체성과 얽혀 있다. 많은 지역에서 부족 원로들은 부족의 법과 관습을 집행하며, 부족원들이 부족 외부로 떠나거나 특히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순종에 대한 처벌은 사형 또는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

독재자의 편집증

예멘은 2012년부터 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분쟁의 상황에서는 전쟁 당사자들의 생존 본능이 강하다. 후티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집권 세력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후티 정부가 점점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수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

기독교인은 종종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서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치주의의 부재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취약하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장기간의 분쟁과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예멘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예멘의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 기독교 개종자는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개종자는 휴대전화를 거부당하고 고립된다. 부족이나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다. 엄격한 무슬림과의 강제 결혼은 그녀를 순응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해결책이다. 엄격한 가족 감시로 인해 여성들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기독교 자료, 가르침과 의식에 대한 접근 거부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의 전반적인 삶은 매우 어렵다. 기독교인 남성과 소년들은 민병대에 강제 징집될 수 있다. 전쟁에 끌려가면 생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고도로 통제된 이슬람 환경 때문에 그들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공 영역에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직장을 잃거나 구타당하고 투옥될 위험이 있으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남성들이 나라를 떠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업 / 직장 / 업무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퇴거 - 퇴학
- 마을 /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당함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 군인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3	94
2024	5	89
2023	3	89
2022	5	88
2021	7	87

지난 3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16.7점을 기록했다. 전체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폭력 점수가 2024년 5.9점에서 10.6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후 후티의 세력이 커지고 급진화되면서 수십 개의 기독교 가정 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기독교 개종자 한 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 최소 한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당했다.
- 비공식 기독교인 친목 모임은 기독교인 단속으로 인해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개인 생활

모든 예멘인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신앙이 발각되면 명예 살인이나 물리적 폭력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급진 무슬림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개인 예배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후티 반군과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지부(AQAP)가 요르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가족 생활

예멘 사회는 엄격한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개종을 가족의 명예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여겨 개종에 대한 가족적 압력이 엄청나다. 모든 기독교 의식이나 축하 행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자녀를 둔 무슬림 배경의 예멘 기독교인의 경우, 이슬람 규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가족 및 사회의 강한 압력이 있다. 부모의 새로운 신앙이 발각될 경우 양육권을 잃을 위험이 높다. 개종을 반대하는 가족은 보수적인 무슬림 배우자와의 중매 결혼을 통해 젊은 개종자를 '교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계속 거부하면 투옥, 가족에 의한 '명예' 살해 또는 무장 이슬람 단체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체 생활

계속되는 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로 예멘의 기독교인들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신앙이 발각된 새 개종자들은 개종을 철회하라는 압력에 직면한다. 개종을 거부하면 기껏해야 투옥이나 폭력, 최악의 경우 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 지도자가 가족과 더 밀착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가 더 어려운 시골 마을에서 공동의 압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 신앙을 숨기는 기독교 개종자들은 모스크에 가지 않거나 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덜 독실한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식량과 구호품 배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국가 생활

예멘의 형법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배교 행위이다. 고용 시 관리자가 직원이 기독교인이라고 의심하면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위 '명예 범죄'를 포함하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가해자는 예멘의 법치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널리 적용되는) 부족 사법 체계는 가정이 처벌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공식적인 시스템에서는 이슬람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회 생활

예멘 남부 해안 아덴에 위치한 세 곳의 공식 교회 건물은 모두 해외 기독교인이나 난민(주로 에티오피아 출신)을 위한 공간으로,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폐쇄된 상태이다. 기독교인들은 비밀 장소에서만 모일 수 있다. 종교 자료의 배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이 엄격하다. 인도주의적 활동을 조직하는 교회는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예멘은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CAT)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예멘은 기독교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개종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는다(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긴급 구호의 편향된 분배로 고통받는다(ICCPR 제26조).
- 기독교 개종자(남성과 여성)는 개종으로 인해 이혼을 당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합니다(ICCPR 제23조 및 CEDAW 제16조).
- 비이슬람 종교 자료의 배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ICCPR 18조 및 19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가택 감금되고 인질로 잡혀 있다(ICCPR 9조 및 12조, CEDAW 15조).

이외 소수 종교집단의 상황

예멘에서 인권 침해에 직면한 다른 소수 종교인으로는 바하이교도와 유대인이 있다. 급진 무슬림들은 바하이교도들을 이교도로 간주하여 차별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후티 당국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을 철회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기도 한다. 대부분 수도에 기반을 둔 소규모 유대인 공동체는 후티 반군에게 적으로 간주된다. 후티 반군은 또한 수니파 무슬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예멘 사역

오픈도어는 기도 조직, 신자 및 목회자 훈련을 통해 예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원한다. 또한 신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고, 신자들과 그 친척들에게 다양한 훈련과 생계비를 지원한다.

